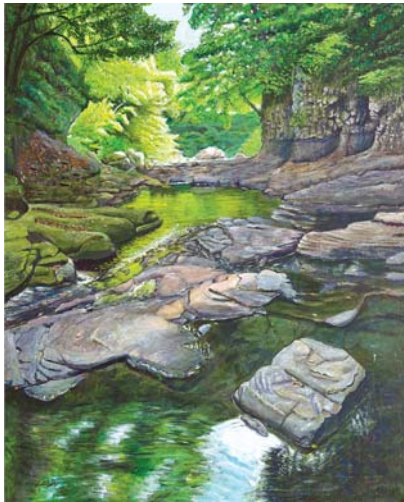




고인순의 '빛을 품은 계곡'.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공

기억 속 풍경 사라지지 않길 70대 화가의 바람 담은 화폭

고인순 설문대여성센터 지원전

그는 60세가 되던 해에 처음 붓을 잡았다고 했다. 시작은 늦었지만 오래전부터 그의 마음속에 있던 제주의 바람과 돌담, 오름과 숲은 스승이 되어주었다. 자연이 품고 있는 생명력과 시간의 흐름은 그렇게 그의 그림에 내려앉았다.

3일부터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에서 개인전을 펼치고 있는 70대 중반 나이의 고인순 작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2026 여성작가 발굴·지원전' 선정 작가로 마련한 전시다.

‘머무는 것들의 시간’이란 주제 아래 전시장에 펼친 작품은 20여 점. “난개발로 인해 기억 속 아름다운 풍경들이 사라져가는 안타까움은 내가 붓을 놓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작가의 말처럼 한라산에서 제주 바다까지 닿은 화폭엔 어느 시절의 그리움이 배어 있다. ‘꽃은 바다를 기억한다’ 등 곳곳에 피어난 꽃들도 화면의 한편을 차지했다. 화려한 이야기는 없지만 익숙하게 봤던 풍경에 삶의 흔적들이 담겨 있다.

현은정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은 “옛 모습이 회미해져가는 길 위에서, 작가는 수십 년을 한자리에서 지켜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변화를 읽어낸다”며 “그렇게 화폭에 옮겨진 풍경은 눈앞의 경치를 넘어, 작가가 제주와 함께 건넌 온 세월의 기록이 된다”고 했다. 오는 31일까지.

전선희기자

오페라 ‘이중섭’ 여정 어느새 10주년

서귀포시 제작 창작 오페라 탄생 100주년 2016년 초연 내달 4~5일 새 주역들 공연 내년엔 또 다른 창작물 개발

화가 이중섭이 한국전쟁 시기 1년 가까이 머물렀던 ‘따뜻한 남쪽 나라’ 서귀포. 이중섭거리, 이중섭미술관으로 그 인연을 붙잡은 서귀포시는 제주의립 서귀포예술단과 함께 화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창작 공연을 만들었고 2016년 9월 초연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서귀포 무대에 올랐고 2019년에는 서울오페라페스티벌에 초청돼 공연했다. 오페라 ‘이중섭’ (작곡 현석주, 극본 이영애·김숙영)이다.

서귀포시가 오페라 ‘이중섭’ 10주년의 의미를 담아 이 작품을 이범로 연출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오는 9월 4일 오후 7시30분, 9월 5일 오후 5시.

오페라로 되살린 이중섭은 ‘비운의 천재 화가’다. 서귀포에서 마주한 찰나의 행복, 그 이후 닥치는 곡절과 시련 등 환희와 비극이 교



지난해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한 오페라 ‘이중섭’.

서귀포시 제공

차하는 생애를 그렸다.

이번에 주요 출연진이 새 얼굴로 바뀌었다. 이중섭 역에 테니 김지현·강동명, 마사코 역에 소프라노 양귀비·이정은을 더블 캐스팅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베이스 김지욱(구상 역), 소프라노 오승희(마사코의 어머니 역)와 서귀포합창단원들도 주·조역으로 참여한다.

연주는 서귀포관악단. 지휘는 이동호·박위수. 유료. 입장권 예매개시는 이달 13일 오전 10시 서귀포티켓.

이 작품이 서귀포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고 자평한 서귀포시는 내년엔 새로운 창작 오페라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오페라 ‘이중섭’ 제작 사례를 참고해 내년엔 대본·작곡 순으로 전국 공모한 뒤 2028년 새 작품을 초연한다는 구상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반영돼 또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면 오페라 ‘이중섭’과 격년으로 공연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서귀포 매력 품은 공간이 예술 무대로

홍민아컴퍼니, 4개 공간서 ‘4색 미장센’ 프로젝트 운영
낭독·시각 예술·클래식·무용

레스토랑, 카페, 정원 등 서귀포의 매력적인 공간들이 예술 무대로 변신한다. 홍민아컴퍼니 기획으로 이달 10일부터 서귀포시 동 지역의 4개 공간에서 펼쳐지는 ‘4색 미장센 (4-Color Mise-en-Scene)’ (리딩 클럽)’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연장·미술관을 벗어나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문화와 예술, 미식이 서로 스며드는 대안 무대로 바뀌는 경험을 나누는 자리다. 문

학 낭독을 중심으로 시각 예술, 피아노, 라이브 재즈, 현대무용 등 공간별 테마 색상을 예술로 구현한 무대를 볼 수 있다.

첫 일정은 이달 10일 오후 7시 루스티카 제주살라미 (동흥동로 25). 시각 예술가 한희선이 이곳의 주제 색상인 ‘크림스 레드’에 맞춘 공간 연출을 선보이며 문화와 미식이 만나는 순간을 이끈다.

두 번째 장소는 이달 28일 오후 7시 ‘그레파이트 흑백’의 백주산보 (칠십리로 406). 피아노 선율과 문학 낭독이 어울리는 무대로 피아니스트 최하나가 시에 기반한 가곡과 쇼팽·바흐·모차르트 등 클래식 레퍼토리를 준비했다.

세 번째 장면은 ‘딥 블루’를 주

제로 9월 12일 오후 7시 이중섭거리의 대표 공간 중 하나인 카페메이비 (이중섭로 34)에서 빛는다. 보컬 홍민아, 기타 조유성, 베이스 박수현으로 구성된 재즈 트리오가 이중섭거리의 밤을 깊고 푸른 감성으로 채울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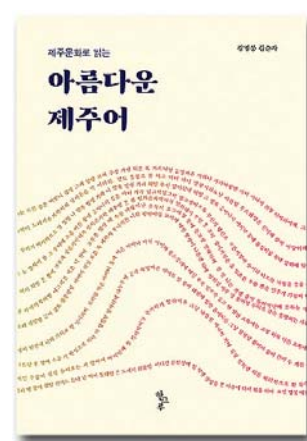
마지막 일정은 9월 29일 오후 4시 베게 (효돈로 48)에서 진행한다. 자연주의 정원을 배경으로 자연과 인간, 문학적 언어로 ‘러프 그린’을 풀어낸다. 안무가 김한결과 이나래가 생태적 즉흥 움직임에 나서고 관객들이 함께하는 무대도 이어진다.

참가 신청 등 홍민아컴퍼니 공식 SNS 계정 (@hongmina_company) 참고.

전선희기자

110개 제주어 어휘 제주문화로 읽다

방언학자 강영봉·김순자
제주어연구소 10돌 기념
‘... 아름다운 제주어’ 펴내



‘밤고냉이’. ‘밤중에 나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에 대응하는 표준어는 없다. ‘밤고냉이’는 또 ‘일정한 집에서 살지 않고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뜻하기도 한다. 이 경우는 표준어로 ‘도둑고양이’다.

‘결명’. ‘잡신을 대접하기 위해서, 제상의 여러 음식을 조금씩 먹고 난 뒤 떼어낸 것. 또는 이렇게 모은 음식물’을 말한다. 달리 ‘결명’, ‘퇴새’라고도 하는데 이에 대응하는 표준어는 없다. 지역에 따라 ‘제반’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제반’이란 제상에 올렸던 제물을 조금씩 떼어내어 지붕 위로 올리는 음식이나 그렇게 하는 일을 뜻하는데 이에 대응하는 표준어 또한 ‘제반’이다.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강영봉 이사장과 김순자 이사가 펴낸 ‘제주문화로 읽는 아름다운 제주어’ (한그루 출판사)의 내용 중 일부다. 제주어연구소 누리집 ‘아름다운 제주어’ 코너에 6월 말 기준 470회에 걸쳐 연재했던 어휘 가운데 제주문화와 관련 있는 110개를 추려 실었다.

110개 어휘는 ‘사람’ (23개), ‘의

식주’ (18개), ‘민속’ (14개), ‘생활’ (31개), ‘동식물’ (15개), ‘자연’ (9개) 등 6개 분야로 나뉘고 표제어는 가나다순으로 정리했다. 언어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에 두고 외연을 넓혀 나가는 순서에 따라 분류했다.

이들 어휘는 뜻풀이, 표준어, 옛말, 분화형 등을 요약한 뒤 예문을 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표제어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으면 맨 끝에 ‘덧붙임’을 넣었다. 단순히 표제어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제주문화의 면면을 전하려 했고 제주 사람들의 생생한 입말을 예문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이 책은 제주어연구소 개소 (2016년 8월 5일) 열 돌을 기념해 나왔다. 머릿글에 10년 전 제주어연구소의 설립 취지를 다시 꺼낸 두 방언학자는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라는 연구소의 신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생활 속 제주어 사진 공모 꿈바당어린이도서관 모집

우수작 제주어 책추제 전시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이 생활 속 제주어 사진 공모를 진행한다. 2024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도민들이 생활 속 제주어를 자연스럽게 찾아내고 제주어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려면 아름다운 제주어가 담긴 사진을 촬영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 곳곳의 제주

어 간판, 안내문, 표지판, 광고, 전시물 등이다.

공모 참여 대상은 어린이에 한정했던 이전과 달리 올리는 도민 전체로 확대했다. 또한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해 제주 전역에서 누구나 쉽게 응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접수 기간은 이달 5일부터 9월 29일까지. 선착순 50명, 우수작 선정 50명 등 100명의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접수된 작품 중 우수작은 오는 10월 열리는 ‘꿈바당 제주어 책추제’에서 전시한다. 도서관 누리집 참고.

전선희기자

제주↔베트남전세기 3박5일
10. 3(토,밤출발) - 10. 7(수,아침도착)

하노이, 하롱베이 1,290,000
하노이, 사파 1,390,000

제주↔일본전세기 3일

특별한 가을 여행

오кина와 10.16(금)-18(일)
구마모토 10.31(토)-11.2(월)
1,099,000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제주↔항주(룽에어)
매주 목요일 | 10명 이상 출발 | 3박4일

노팁! 노옵션! 노쇼핑!

황산 1,199,000
오진 1,199,000
상해 1,099,000

한글날연휴 항주, 황산 4일
10.8(목) - 11(일) **1,249,000**

제주직항 없을 때는 청주경유가 최고!

제주↔청주↔장가계

9월 특가 (노옵션)
3박4일(토) 4박5일(화)
849,000

제주↔청주↔베트남
3박5일 (노팁,노옵션)
다낭&호이안 750,000~
나트랑&달랏
제주↔청주 국내선 별도